



미사지향

| 연미사                    | - 봉헌자          |
|------------------------|----------------|
| • 정인규                  | - 가족           |
| • 김수명                  | - 유 베로니카       |
| • 오흥순(카타리나)            | - 가족, 흥순연(비안나) |
| • 이화자(마틸다)             | - 가족           |
| • 김병학(바오로)             | - 손영수(유스티노)    |
| • 최규학(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 가족           |

| 생미사                     | - 봉헌자        |
|-------------------------|--------------|
| • 김경희(수산나)              | - 가족         |
| • 김진철(요한)               | - 가족         |
| • Simon Yim             | - 육순재(프란치스코) |
| • 한기숙                   | - 이서형(요안나)   |
| • 서 펠릭스, 서 멜라니온, 김 마르셀라 | - 가족         |
| • 유용희(울리아나) CLC 종신서약 축하 | - 사랑팀        |
| • 허요한                   | - 가족         |
| • 이석종(스테파노), 이주민(헬레나)   |              |
| - 전옥주(글라라), 정길례(프란체스카)  |              |

교무금 납부 안내

|          |          |            |
|----------|----------|------------|
| 황종성(1-4) | 정영철(5-6) | 임문수(5)     |
| 채희백(5-6) | 김금자(3-5) | 곽유리안나(5-6) |
| 서경호(5)   | 손흥구(4-6) | 한철희(5-6)   |
| 박락준(5)   | 이호용(5-6) | 한상철(4)     |
| 허증(5)    |          | 합계:\$1,930 |

주일 헌금 납부 안내

|             |           |
|-------------|-----------|
| 주일미사 참여 88명 | 합계: \$778 |
|-------------|-----------|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안내

1. 우편으로 납부
- 분실위험으로 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2. 현금으로 납부
-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 주시거나,
- 2) 구역장님/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실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Venmo
- 친구찾기로 “SBB-LEE” 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헌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문의: 사무장(732-258-5998)

공지사항

#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 # 2차헌금 안내
- 5월 9일: 성당 유틸리티 비용 마련 2차 헌금
- 5월 16일: Development of People 2차 헌금

- # 견진성사 안내
- 5월 16일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 중 본당 신부님 집전으로 견진성사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견진성사를 받는 박서진(사무엘) 학생을 위해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이남웅(스테파노) 주임 신부님 화상 영성강의
- 일자: 5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 9시 반
- 주제: 성모성월 (성모님의 영성)
- 강의방법: Zoom 화상 강의 (강의 접속링크는 구역장님들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 주일학교 기금마련 행사 안내
- 성모회와 자모회 주관으로 주일학교 기금 마련을 위해 김밥 (\$5불) 과 돈까스 (\$10) 판매를 실시합니다.
- 일시: 5월 16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성당 옆문 잔디밭

- # 주일학교 은총시장 안내
- 일시: 5월 16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성당 뒷편 주차장

- #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안내
- 일시: 5월 16일 주일부터 매 주 미사 후 한 시간
- 장소: 친교실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한신 분들께서는 미사 후 친교실로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됩니다.

- # 성당 제대꽃을 봉헌해 주신 오경숙(세실리아) 자매님과 박화성(헬레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 지난 목요일 성당 화단 가꾸기에 봉사해 주신 한상철(빈첸시오), 한종매(안나), 유병기(베네딕도), 유용희(울리아나), 육순재(프란치스코), 육글라라, 이재구(프란치스코), 이명호(비비안나), 신용철(다니엘), 박화성(헬레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2021년 Bishop’s Annual Appeal
- 각 가정에서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봉투를 이용하여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http://diometuchen.org/BAA>.
- 2021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이며 4월 26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30,575 (목표금액의 87.4%, 108명 참여)입니다.

<요한 복음> 15,9-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4가지 믿을 교리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께 최상의 공경을 드리면서 4가지 믿을 교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성모성월을 맞아 믿음의 모범이셨던 성모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성모님에 대한 믿을 교리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                                                                                                                                                                                                                                                                                                                                                                                                                                                               |
|-------------------|---------------------------------------------------------------------------------------------------------------------------------------------------------------------------------------------------------------------------------------------------------------------------------------------------------------------------------------------------------------------------------------------------------------------------------------------------------------|
| 평생 동정이신<br>마리아    |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선포                                                                                                                                                                                                                                                                                                                                                                                                                                      |
|                   |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 7,14) 마리아께서 동정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출산 이후에도 평생 동정으로 사셨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의 동정은 마리아께서 하느님께 온전히 속해 있음을, 하느님의 구원행위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것임을 나타내줍니다. 성경에 ‘만아들’이라는 표현과 ‘예수의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탓에 마리아의 동정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외아들 또한 만아들이라고 했었고, 사촌 관계를 형제라고 표현했던 당시 풍습에 따른 것입니다. 동정 잉태에 대한 믿음은 마리아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고백하는 것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 하느님의 어머니이신<br>마리아 |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선포                                                                                                                                                                                                                                                                                                                                                                                                                                             |
|                   | 마리아께서 낳으신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느님과 같으신 분이시며 때가 찼을 때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신 참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이 칭호는 마리아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신분이 간접적으로 밝혀졌습니다.                                                                                                                                                                                                   |
| 원죄 없이 잉태되신<br>마리아 | 1854년 비오 9세 교황에 의해 선포                                                                                                                                                                                                                                                                                                                                                                                                                                         |
|                   |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태중은 무죄하고 흠 없이 깨끗해야 하기에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원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따라서 마리아 역시 한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필요로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무죄성이라는 특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1858년 프랑스 루르드 성모 발현을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음을 알려주시면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셨습니다.                                                                                                                                       |
| 마리아의 승천           | 1950년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 선포                                                                                                                                                                                                                                                                                                                                                                                                                                        |
|                   | 마리아는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스스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올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차 우리도 받게 될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표지가 됩니다.                                                                                                                                                                                                                                                             |

성모님에 대한 교리는 성모님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순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구원과 그에 따른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교리톡톡 신앙쑥쑥>